

기술매개 성폭력이 피해자의 외상후스트레스 증상에 미치는 영향: 정서조절곤란과 수치심의 매개효과*

선해라	박경우 [†]	장혜인 [‡]	Daisuke Ito	Yushun Okabe	Yuna Matsuoka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석사과정	성균관대학교 응용심리연구 소 연구원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Hyogo University of Teacher Education 교수	Kitasato University, School of Allied Health Sciences	Hyogo University of Teacher Education 박사과정

기술매개 성폭력(Technology-facilitated sexual violence: TFSV)은 온라인 및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매개로 발생하는 성폭력을 지칭하며, 그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그 메커니즘은 많이 연구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기술매개 성폭력에 노출된 경험과 외상후스트레스 증상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 정서조절곤란과 수치심의 역할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한국 성인 315명을 대상으로 기술매개 성폭력 피해 경험,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증상, 수치심 및 정서조절곤란을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통해 측정하였다. 구조방정식 분석 결과, 기술매개 성폭력 피해 경험이 외상후스트레스 증상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관계를 정서조절곤란이 유의하게 매개하였다. 수치심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정서조절곤란과 수치심의 순차매개효과는 유의하였다. 이는 기술매개 성폭력 피해가 정서조절의 어려움을 유발하고, 수치심이 심화되어 외상후스트레스 증상 수준의 증가로 이어짐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기술매개 성폭력이 피해자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심리적 기제를 살펴봄으로써 최근 증가하고 있는 기술매개 성폭력 피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치료 표적을 제시한다는 임상적 함의를 가진다.

주요어 : 기술매개 성폭력, 정서조절곤란, 수치심, 외상후스트레스 증상

* 이 논문은 2023년도 한국연구재단의 국제협력사업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23K2A9A2A08000216).

† 현재 Yale School of Medicine에서 박사후연구원으로 근무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장혜인, (0306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Tel: 02-760-0490, E-mail: hichang@skku.edu



Copyright ©2026, The Korean Health Psychological Associatio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메타버스와 인공지능 등의 디지털 기술이 개발되고 널리 사용됨에 따라(Dwivedi et al., 2023) 폭력의 양상은 오프라인 환경에서 일어나는 신체적인 폭력에서 디지털 환경에서의 폭력으로 이동하고 있으며(Donato et al., 2022),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역시 이에 해당한다(Henry & Powell, 2015). 온라인이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성폭력은 한국에서도 여러 건이 보고되며(Jun, 2021), 매년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Powell과 Henry(2016)가 정의한 기술매개 성폭력(Technology-facilitated Sexual Violence: TFSV)은 이러한 범죄 행위를 모두 통합한 개념으로, ‘온라인 환경에서만 발생하거나 기타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매개로 발생하는, 동의 하에 이루어지지 않은 성인 대상의 성적 행동’으로 정의된다(Henry & Powell, 2015). 구체적으로는 이메일, 음성 및 영상통화, 문자 및 사진 메시지, 온라인에서의 글을 통한 원하지 않는 디지털 성희롱과, 동의 없이 성적인 이미지를 유포하는 행위, 디지털 기반의 성적 강요, 젠더 및 성적 지향성 기반의 희롱이 해당된다(Powell & Henry, 2019). 기술매개 성폭력은 오프라인 상에서 벌어지는 성폭력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폭력행위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는 특성(김수아, 장다혜, 2019)을 가지고 있다. 이는 정신적 외상 사건으로 작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심리적 고통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러나, 기술매개 성폭력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 피해가 반영구적이고 규모가 크다(Jun, 2021). 물리적으로 특정한 시공간에서 발생하며 피해 상황이 종료될 수 있는 오프라인 성폭력과 달리, 온라인 상에서는 성적인

이미지나 영상이 얼마든지 반복적으로 게재되거나 저장, 복제될 수 있기 때문에 시공간 제약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빠르게 퍼질 수 있다(고현희, 2022). 그에 따라 피해자는 자신을 촬영한 콘텐츠가 유포되었다는 것을 즉각 인지할 수 없어 조기에 대처하기 어려워지며, 피해 규모는 더욱 확대된다. 또한, 디지털 자료의 특성상 삭제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완전히 사라졌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피해 경험이 종결되지 않았다고 인지함으로써 지속적인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 한편,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지는 성희롱은 공개된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진다는 점과 가해자의 익명성으로 인해 신고 및 수사가 어렵다는 점에서 피해자들이 더 큰 고통을 느끼기도 한다(김수아, 장다혜, 2019). 이러한 디지털 기술의 특성으로 인해, 기술매개 성폭력은 오프라인에서의 성범죄와는 다른 맥락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성인에게 가해지는 온라인 상의 성폭력은 신체적인 성폭력에 비해 그 성질이나 심리적 영향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부족하며(Powell & Henry, 2019), 오프라인 상에서 벌어지는 성적 폭력만큼 타당한 유형의 폭력이라고 인식되지 않고 있다(Donato et al., 2022). 주로 어리고 순진하다고 인식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을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점은 오프라인 상의 성폭력과 유사하지만(Killeen et al., 2022), 신체 접촉 여부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상의 성폭력을 다르게 인식하는 데에 영향을 미친다. 물리적인 접촉이 없었거나 육체와 무관한 손상을 입은 피해자는 전형적인 성폭력 피해자로 인지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진지하게 받아들여진다(Killeen et al., 2022). 따라서 TFSV에 노출된 피해자의 심리적 어려움은 상대적으로

간과될 수 있다. 나아가 온라인 상에서의 성범죄에 대한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점은 2차 가해 등으로 이어져 피해자의 정신건강에 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단계’의 필요성이 가장 낮게 지목되었다는 점(문화체육관광부, 2018)을 고려하면 피해자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인지도 역시 낮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기술매개 성폭력의 피해자들은 불안감, 공포(윤지영, 2023)와 성적 수치심(고현희, 2022) 등 정신적인 피해를 입게 되므로 이에 관한 연구를 기반으로 한 피해자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온라인 상의 성폭력이 개인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양상과 그 기제를 이해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기술매개 성폭력이 피해자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오프라인 상의 성폭력이 외상후스트레스 증상으로 이어지는 기제를 다룬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해당 기제가 기술매개 성폭력에서도 유사하게 작동하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특별히, 기술매개 성폭력이 피해자들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정서조절곤란과 수치심을 중심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기술매개 성폭력은 성을 매개로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함으로써 고통을 야기하는 폭력행위라는 점에서 오프라인 상의 성폭력과 근본적인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 대인관계에서 이와 같은 외상 경험을 한 사람들은 대인관계와 무관한 외상 사건의 피해자들에 비해 심리적으로 더 큰 고통을 겪으며, 외상후스트레스 증상을 보일 가능성이 더 높다(Kilpatrick et al., 2013). 성폭력은 대표적인 대인관계성 외상 사건으로, 여성 강간 피해자

의 31%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를 경험한다(Ullman et al., 2007). Dworkin(2018)의 메타분석에 따르면, 성폭력에 노출되지 않은 집단은 평생 동안의 PTSD 유병률이 9%인 반면, 성폭력에 노출된 집단은 36%의 유병률을 보였다. 성폭력 피해자들의 PTSD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한데, 가해자와의 관계(Martin et al., 2011)나 공격의 심각성(Ullman et al., 2007) 등 사건의 특징과 주변 환경, 피해자가 사건을 다루는 방식 등이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성폭력과 같은 대인적 외상 사건의 피해자는 대인관계와 무관한 외상 경험을 한 사람들에 비해 사건이 종결된 이후에도 유의하게 높은 수준의 부정 정서를 경험한다(Kilpatrick et al., 2013). Gratz와 Roemer(2004)에 따르면, 높은 수준의 정서적 각성은 정서조절 과정에 필요한 인지적·정서적 자원을 제한하여, 정서를 인식 및 수용하며 조절하는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 특히 기술매개 성폭력은 콘텐츠의 지속적 유포 및 재노출 가능성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과각성 상태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태가 장기간 유지될 경우 정서조절 기능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정서조절곤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정서조절은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감정을 경험하고 표현하는 방식에 변화를 주는 과정을 의미하며,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인 정서를 유지하거나 증가 또는 감소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Gross, 1998). 반대로 정서조절곤란은 정서의 이해와 수용,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할 때에 충동적인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과 상황에 적합한 정서조절 전략의 유연한 사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지칭한다(Gratz &

Roemer, 2004; Ullman et al., 2014). 정서조절에 어려움을 겪으면 부적절한 정서조절 전략을 과하게 사용하는 반면, 적절한 정서조절 전략은 상대적으로 덜 사용하게 되는데 (Chesney & Gordon, 2016), 적절한 정서조절 전략 사용의 실패는 PTSD와 연관성을 보인다. 특히 외상 경험으로 인해 느끼는 부정적인 정서를 제대로 조절하지 못할 경우, 더 심각한 수준의 PTSD로 이어진다(McLean & Foa, 2017). 외상에 의해 야기된 자신의 부정적인 정서를 통제할 수 없고 위협적이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은 외상 신호에 대한 두려움을 악화시키며, 외상을 떠올리는 것들을 회피하는 경향성을 보인다(Raudales et al., 2019). 그러나 이는 실제로 정서적 경험을 차단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생리적 반응을 역으로 증가시키거나 더 심한 정신병리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Gross, 2002; Gross & John, 2003). 외상 사건으로 인한 정서조절곤란은 성폭력 등 대인관계 맥락에서 외상 사건을 경험했을 때 더욱 두드러지며(Berfield et al., 2021), 공격 이후 성폭력 피해자들이 보이는 회피적인 대응 방식은 더 심한 외상후스트레스 증상과 연관되어 있다(Ullman et al., 2007). 전통적인 방식의 성폭력과 그로 인한 PTSD를 정서조절 곤란이 매개하는 양상은 다수의 경험 연구에서 확인된 바 있다. 배우자나 성적 파트너에 의한 성폭력을 포함하는, 가까운 파트너에 의한 폭력(Intimate Partner Violence)을 경험한 피해자들의 정서조절 결함이 외상후스트레스 증상과 정적인 연관성을 보였으며(Ruork et al., 2022), 대인적 외상 사건이 정서조절 시스템의 기능적 결함을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심리적 부적응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Gratz & Roemer, 2004). 특히 정서조절은

고정된 개인적 자원이 아니라, 외상 자극에 의해 저하될 수 있는 가변적 기제라는 점에서 외상과 PTSD 사이의 유의미한 매개 경로로 기능한다(Gratz & Roemer, 2004). Raudales 등(2019)은 정서조절곤란이 외상 유형과 PTSD 사이를 매개하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자연재해 등 대인관계와 무관한 외상 사건에 비해 대인관계와 관련된 외상 사건의 피해자들이 정서조절의 어려움을 더 많이 경험하였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성폭력을 경험했을 때 정서조절의 어려움을 더 많이 경험하였으며, 외상후스트레스 증상도 더 많이 보고하였다.

외상 연구에서 특히 주목해야 하는 정서인수치심은 여성 성폭력 생존자의 75%가 공격 이후에 느낄 정도로 흔히 경험하는 주요한 부정 정서이다(Vidal & Petrak, 2006). 수치심은 개인이 특정 행동이 아닌, 자기 전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며 경험하는 자기의식적 정서로, 자신이 타인에게 부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인식과 관련된다(Lewis, 1971, 재인용: Tangney et al., 2006; Tangney & Dearing, 2002). 일반적으로 피해 당시 무력하게 대응했거나,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못했다는 지각 등 외상 상황의 수치스러운 측면에 대한 사후 평가로 인해 경험하며(Bockers et al., 2015), 폭력이나 학대가 수반되는 대인적 외상의 피해자들이 더 높은 수준의 수치심을 느낀다(Amstadter & Vernon, 2008; La Bash & Papa, 2013; Seah & Berie, 2023). 기술매개 성폭력의 경우, 동의 없는 성적인 이미지의 유포 등 자신의 사적인 모습이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었다는 점과 이를 통제할 수 없었다는 무력감으로 인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 피해자들은 성폭력 사건을 경험한 이후 자신이 타인에 비해 결함이 있다는 인식을 형성하

게 되며, 이러한 부정적인 자기 평가로 인해 외상 사건의 피해가 자신의 특성이나 행동 때문에 발생했다고 믿으며 스스로를 비난하고, 수치심을 느낀다(Kennedy & Prock, 2018; Ullman et al., 2014). 구체적으로 기술매개 성폭력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인 이미지를 유포하는 등 가해자의 위법 행위로 발생하며, 그에 따른 법적·도덕적 책임은 가해자에게 있음에도, 상당수의 피해자는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고 믿으며 수치심을 느끼게 된다. 특히, 기술매개 성폭력은 이미지나 영상의 무한 복제 및 확산(고현희, 2022)될 수 있는 특성이 있으며, 피해자의 사적 이미지가 불특정 다수에게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 있다는 인식(김수아, 장다혜, 2019)으로 인해 수치심을 경험할 수 있다. 한편, 온라인 상에서 자신의 이미지가 성적으로 소비된 것을 인식한 피해자들은 자신이 존엄성을 가진 존재가 아닌 성적 욕망을 해소하는 도구로 취급되었다는 점에서 수치심을 경험하였다고 보고한다(김수아, 장다혜, 2019). 성폭력으로 인한 수치심은 사회적 낙인이나 타인의 시선에 의해서도 경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인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 행위는 개인이 통제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보기 때문에 사회는 이를 통제하거나 방지하지 못한 피해자를 비난하는데(Woodward et al., 2015), 특히 성적인 외상의 생존자들이 사회적 비난을 더 많이 경험한다(Kennedy & Prock, 2018; Maercker & Horn, 2013; Peter-Hagene & Ullman, 2015). 피해자의 성별, 성적 지향성, 가해자와의 관계나 저항의 부재 등이 사회적 낙인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피해자가 자신의 특성에서 피해의 원인을 찾는 것과 맞물려 수치심을 불러일으킨다. 피해자의 언행이 가해자를 먼저 자극하거나

특정 복장을 입음으로써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선입견이나 잘못된 믿음은 사실이 아니더라도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함으로써 이를 내재화한 수치심을 느끼게 한다(Amstadter & Vernon, 2008). 3,431명의 노르웨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Aakvaag et al., 2016)에서 아동기 성적 학대, 강간, 가까운 파트너 간 폭력과 외상 관련 수치심이 독립적으로 연관되었음이 나타났다. 성폭력으로 인해 경험하는 수치심은 PTSD로 이어질 수 있다(Duncan & Cacciatore, 2015). 수치심을 유발하는 자기 비난과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사회적 비난은 외상후스트레스 증상과 정적으로 연관되어 있다(Ullman et al., 2007). 또한, 수치심을 느끼면 회피하거나 숨고자 하는 마음으로 인해(Duncan & Cacciatore, 2015) 타인에게 피해 사실을 공개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꺼리게 되며(Kennedy & Prock, 2018), 이로 인해 심리적 고통이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당시 통제할 수 있었던 행동보다는 조절하거나 바꿀 수 없는 개인의 특징이나 성격에 대해 수치심을 느낄 때에 보다 안정적인 자기 평가로 내면화될 수 있으며, 이는 정서적 회복을 저해하여 외상후스트레스 증상의 심화를 초래할 수 있다(Kennedy & Prock, 2018; Ullman et al., 2014). 오프라인 성폭력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반응과 외상후스트레스 증상 간을 외상 관련 수치심이 매개한다는 점(DeCou et al., 2018)은 피해자들이 사회적 시선으로 인해 겪는 수치심이 피해자의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침을 드러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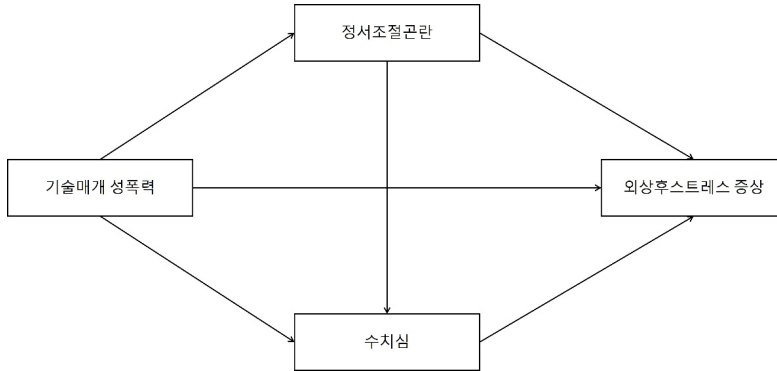
이처럼 정서조절곤란과 수치심이 성폭력과 외상후스트레스 증상의 관계에서 매개요인으로 작용하나(Duncan & Cacciatore, 2015; McLean & Foa, 2017), 두 요인은 독립적이지

않으며, 정서조절곤란이 수치심을 초래한다. 외상 사건으로 인해 정서조절곤란을 경험하는 개인은 부정 정서를 조절하는 데에 역기능적인 정서조절 전략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전략 중 하나로 부정적인 사건에 대해 내적인 귀인을 하는 자기비난이 있는데 (Garnefski et al., 2002), 이는 사건의 요소를 스스로의 특징에 귀인하고 비난함으로써 수치심을 경험하는 과정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Duncan & Cacciato, 2015). 이와 더불어 정서조절곤란은 수용하는 능력의 저하를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이므로, 외상 이후 정서 수용의 어려움은 부정적 정서를 개인의 결함이나 잘못으로 해석하게 하여 자아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강화할 수 있다. 또한, 정서적 명확성 부족은 자신의 정서를 혼란스럽고 통제하기 어려운 경험으로 지각하게 함으로써 수치심과 관련될 수 있다 (Gratz & Roemer, 2004). 결과적으로 정서조절곤란의 다양한 하위 요인은 외상 경험의 인지적·정서적 통합을 저해하고, 자기에 대한 전반적인 부정적 평가인 수치심으로 이어지는 심리적 경로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 수치심은 심리적 고통과 기능 손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하향 조절하고자 하는데 (Schoenleber & Berenbaum, 2011), 정서조절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러한 정서를 효과적으로 조절하기 어려워, 수치심이 강화될 수 있다. 경험 연구에서도 수치심은 부적응적인 정서조절 전략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Paulus et al., 2016; Puhalla et al., 2021). 또한, 성폭력을 포함한 대인적 외상을 경험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정서조절곤란이 외상 사건 당시 스스로의 행동에 대한 수치심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Mirabile et al., 2023).

이처럼 외상 이후의 수치심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겪는 어려움은 외상후스트레스 증상의 발생 및 지속에 영향을 미친다 (Taylor, 2015). 대인관계의 맥락에서 외상 사건을 경험한 피해자들의 정서조절곤란은 성격에 대한 수치심과 신체에 대한 수치심에 영향을 미쳤으며, 그로 인하여 외상후스트레스 증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Mirabile et al., 2023). 참전 군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정서조절곤란의 변화는 수치심의 변화를 정적으로 예측하였으며, 외상후스트레스 증상도 정적인 방향으로 예측하였다 (Puhalla et al., 2021). 따라서, 정서조절곤란과 수치심은 성폭력 등의 외상 사건으로 인한 PTSD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정서조절곤란이 수치심을 야기함으로써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폭력과 피해자의 PTSD 사이의 관계에서 정서조절곤란과 수치심이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정서조절곤란이 수치심으로 이어짐으로써 순차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서조절 실패가 수치심을 유발한다는 관점 외에도, 강렬한 수치심 자체가 개인의 인지적 자원을 잠식하여 적응적인 정서조절 과정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주장 (Schoenleber & Berenbaum, 2011) 또한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두 변인 간의 인과적 선후 관계에 대한 이론적 가능성이 공존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순방향 및 역방향의 매개 경로를 통계적으로 비교 검증하여 기술매개 성폭력 피해자의 PTSD 증상을 설명하는 최적의 모델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한편, 성별이나 오프라인 성폭력 피해 경험이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에 영향을 주요 요인으로 보고되어 왔기 때문에 (예: Dworkin, 2018; Kilpatrick

그림 1. 연구 모형



et al., 2013), 본 연구에서는 기술매개 성폭력이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에 미치는 고유한 영향력을 규명하기 위하여 해당 요인들을 통제하고자 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술매개 성폭력이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으로 이어지는 기제에 대한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을 수립하였다. 연구 가설에 따른 연구 모형은 그림 1에 제시하였다.

1) 기술매개 성폭력 피해가 많을수록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을 더 많이 경험할 것이다.

2) 기술매개 성폭력 피해 경험과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의 관계를 정서조절곤란이 매개할 것이다. 즉, 기술매개 성폭력 피해가 많을수록 정서조절곤란이 높고, 이는 PTSD 증상과 정적으로 관련될 것이다.

3) 기술매개 성폭력 피해 경험과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의 관계를 수치심이 매개할 것이다. 즉, 기술매개 성폭력 피해가 많을수록 수치심을 더 많이 느끼고, 이는 PTSD 증상과 정적으로 관련될 것이다.

4) 기술매개 성폭력 피해 경험은 정서조절곤란과 수치심을 순차매개하여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즉, 기술매개 성폭력 피해가 많을수록 높은 수준의 정서

조절곤란과 수치심을 거쳐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 수준이 더 높을 것이다.

5) 기술매개 성폭력 피해와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의 관계에서 정서조절곤란과 수치심 간의 순차적 매개 경로는 순방향(정서조절곤란 → 수치심)과 역방향(수치심 → 정서조절곤란) 모두 유의할 수 있으며, 두 경로는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을 설명하는 정도에서 차이를 보일 것이다.

방 법

참가자 및 절차

본 연구는 인스타그램과 X(구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 상에서 광고를 통하여 모집한 국내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성폭력 피해와 정신건강의 관계에 대한 조사이나 성폭력 피해 유무와 관계없이 참가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다. 635명이 설문 참여에 동의하였으나, 모든 문항에 응답하지 않았거나 주의력 점검 문항(“질문지에 주의를 기울이고 계신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 문항에 ‘며칠 동안 방해 받았

다'를 선택해주세요”)을 통과하지 못한 320명을 제외한 최종 표본은 315명이다(여성 209명, 남성 106명; 연령 평균=30.42세, $SD=7.63$). 응답자 대부분의 연령이 20대(47.6%)였으며, 30대(39.7%), 40대(7.3%), 50대 이상(3.2%), 20대 미만(2.2%)이 차례로 많이 응답하였다. 참가자들의 교육 수준은 고등학교 졸업($n=30$, 9.5%), 전문대 재학($n=1$, 0.3%), 대학교 재학($n=75$, 23.8%), 전문대 졸업($n=38$, 12.1%), 대학교 졸업($n=144$, 45.7%), 대학원(석사) 재학($n=8$, 2.5%), 대학원(석사) 졸업 이상($n=19$, 6.0%)으로 나타났다. 고용상태는 전일제 근로($n=156$, 49.5%), 파트타임 근로($n=36$, 11.4%), 한정된 계약기간 동안 근로($n=21$, 6.7%), 미고용 상태($n=102$, 32.4%)로 구성되었다. 참여자들은 설문 문 응답을 완료한 이후 일정 액수의 금전적 보상을 지급받았으며, 기술매개 성폭력 피해와 관련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소개하여 필요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독려했다. 본 연구는 성균관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사전 승인(SKKU 2023-12-056)을 받아 진행되었다.

측정도구

기술매개 성폭력 피해 척도 개정판 (Technology-Facilitated Sexual Violence Victimization Scale-Revised: TFSV-V-R). 기술매개 성폭력 피해 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Powell과 Henry(2019)가 개발한 척도로, 평생 동안 혹은 지난 12개월 동안 경험한 기술매개 성폭력 피해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평생 동안의 경험은 2점 리커트 척도(0=경험한 적 없음, 1=경험한 적 있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12개월 동안의 경험은 3점 리커트

척도(0=전혀 없었음, 1=한 번 있었음, 2=두 번 이상 있었음)로 평정되었다. 지난 12개월 동안의 피해 경험과 평생 동안의 피해 경험의 응답을 대조한 결과, 불일치하는 응답이 확인되었다. 이는 응답 과정에서 시간 범주의 혼동으로 인해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어, 본 연구에서는 최근 피해 경험을 보다 명확하게 반영하는 지난 12개월 동안의 피해 경험 응답을 활용하였다. 원척도는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박사과정급 연구원이 1차로 번안하였으며, 연구책임자인 임상심리전공 교수의 주관 하에 영어와 한국어에 모두 능통한 연구원이 역번역을 실시하여 원문과의 의미 동등성을 확인하였다. 이후 국내에서 피해를 입은 147건의 사례를 조사하여 원척도 문항과 대응 여부를 확인하였고, 그 중 11건의 사례가 대응되지 않아 원척도 개발자와의 논의를 통해 항목을 추가 및 수정하여 32문항으로 확장하였다. 특히, 딥페이크(deepfake) 등의 합성 기술을 사용한 성적 학대, 그루밍 성폭력 등이 추가되었다. 개정된 척도는 디지털 성희롱/침해(7문항, 예: 누군가 당신을 성적으로 희롱함), 이미지 기반 성적 학대(7문항, 예: 누군가 당신의 허락 없이 딥페이크와 같은 합성 기술을 사용하여 당신처럼 보이는 성적 영상이나 사진을 제작함), 성적 공격/강요(7문항, 예: 온라인에서 처음 만난 사람과 온라인으로 원치 않는 성적 경험을 함), 그루밍 성폭력(4문항, 예: 누군가 당신과 신뢰를 쌓고 교묘하게 이끌어 외설적인 성적 메시지를 주고받도록 함), 젠더/섹슈얼리티 기반 괴롭힘(7문항, 예: 누군가 당신의 젠더[사회적 성별]를 표적으로 한 모욕적이거나 비하적인 메시지, 댓글 또는 다른 콘텐츠를 게시함 [예, 성차별 또는 강간 농담])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문항은

부록에 첨부하였다.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 (Cronbach's α)는 .85이었다.

정서조절곤란 척도 단축형(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Scale-Short Form: DERS-SF). 정서조절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측정하기 위해 Gratz와 Roemer(2004)가 개발한 정서조절곤란 척도(DERS)를 Kaufman 등(2016)이 타당화한 척도이다. 허지혜 등(2025)이 변안한 DERS 단축형을 사용하였다. 총 18문항으로, 정서에 대한 비수용성, 목표지향 행동 수행의 어려움, 충동통제 곤란, 정서적 명료성의 부족, 정서조절 전략에 대한 접근 제한, 정서적 명료성의 부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리커트 척도(1=전혀 아니다, 5=거의 항상 그렇다)로 평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조절 곤란의 정도가 높다는 의미이다. 선행연구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91로 나타났다(Kaufman et al., 2016), 본 연구에서는 .95로 보고되었다.

외적 및 내적 수치심 척도(External and Internal Shame Scale: EISS). 타인에 의해 평가되는 자아에 초점을 맞춘 외적 수치심과 자기 중심적인 부정적인 평가를 의미하는 내적 수치심을 측정하기 위해 Ferreira 등(2022)이 개발한 척도이다. 변안을 위하여 원저자의 승인을 받은 후, 박사과정생과 석사졸업생이 독립적으로 1차 번역을 수행하였으며, 이후 임상심리학 교수의 감독 하에 단일 번역본으로 통합하였다. 이어 영어권 거주 경험이 있는 심리학 전공자 2인의 역번역을 거쳐, 번역자, 임상심리학 교수, 및 석·박사 과정생으로 구성된 연구팀이 전체 문항을 검토·수정하여 한국어판 질문지를 완성하였다. 총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리커트 척도(0=전혀 느끼지 않는다, 4=항상 느낀다)로 평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수치심의 정도가 높다는 의미이다.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 계수 (Cronbach's α)는 .94이었다.

DSM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체크리스트 (PTSD Checklist for DSM-5: PCL-5). DSM-5 기준에 근거하여 외상후스트레스 증상을 측정하기 위해 Blevins 등(2015)이 개발하고 이동훈 등(2022)이 변안한 척도를 활용하였다. 총 20문항으로, 각 문항은 0점('전혀 아님')부터 4점('매우 많이')의 5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된다. 점수 범위는 0점에서 8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외상후스트레스 증상의 심각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행 연구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97이었으며(이동훈 등, 2022), 본 연구에서는 .97로 나타났다.

성경험조사-피해 단축형 질문지(Sexual Experiences Survey-Short Form Revised: SES-SFV). 최근 12개월 사이 또는 만 14세부터 최근 1년까지의 기간 동안 성폭력 피해의 유형별 빈도를 측정하는 척도로, Koss 등(2007)이 개발하였다. 각 문항은 원치 않은 성적 경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세부적인 상황 유형과 조합하여 그 빈도를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원저자의 승인을 받은 후, 임상심리학 교수 감독 하에 박사과정생 1인이 1차 번역을 수행하였으며, 이후 영어권 거주 경험이 있는 심리학 전공자 2인이 역번역을 실시하였다. 번역본은 번역자, 임상심리학 전공 교수, 석·박사 과정생으로 구성된 연구팀의 검토를 거쳤고, 최종적으로 원저자에게 번역본에 대한 확인을 받았다.

또한, 원자자가 개발 중이던 성경험조사-피해 (SES-V)의 비접촉(non-contact) 성희롱·추행 모듈 문항 5개를 추가로 제공받아 번역 후 본 연구에 포함하였다. 피해 빈도는 0회, 1회, 2회, 3회 이상으로 응답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12개월 사이의 피해 경험만 사용하였다. 선행 연구에서 전체 문항의 내적합치도 (Cronbach's α)는 .70이었으며(Johnson et al., 2017), 본 연구에서는 .93으로 나타났다.

인구통계학적 정보. 참가자들은 연령(숫자), 출생 시 성별(남자, 여자), 성정체성, 성적 지향, 최종 학력, 재직 여부, 현재 관계 상태에 대한 질문에 응답하였다. 최종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 이하,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전문대 재학, 대학교 재학, 전문대 졸업, 대학교 졸업, 대학원(석사) 재학, 대학원(석사) 졸업 이상의 범주로 구성되었다. 재직 여부는 전일제, 파트타임, 한정된 계약기간 동안 근로 및 무직의 범주 내에서 객관식으로 응답하였다.

분석 방법

먼저, 기술매개 성폭력 피해 경험 자료는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아 R(v. 4.3.2; R Core Team, 2023)의 Car 패키지(v. 3.1.3; Fox & Weisberg, 2019)를 이용한 Yeo-Johnson 변환을 통해 정규화 하였다. Yeo-Johnson 변환은 음수와 0을 포함한 데이터를 정규화 할 수 있는 변환 방식으로(Yeo & Johnson, 2000), TFSV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포함된 본 자료에 사용하기 적합하다. 기술통계와 상관분석은 R과 IBM SPSS Statistics Version 27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성별은 이분변수로 코딩되었으며, 이 경우 Pearson 상관계수는 point-biserial

correlation과 동일하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Pearson 상관분석을 사용하였다. IBM SPSS AMOS 27의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여 기술매개 성폭력 피해 경험과 외상후스트레스 증상 간 관계, 그리고 정서조절곤란과 수치심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으며, 특히 정서조절 곤란이 수치심으로 이어지며 순차 매개효과를 보이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최근 12개월 내 기술매개 성폭력 피해 경험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외상후스트레스 증상 총점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과 신뢰도 높은 추정을 위해 부트스트랩 재추출 표본 수는 5,000개로 설정하였다(MacKinnon et al., 2004; Shrout & Bolger, 2002).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는 RMSEA가 .08 이하(Browne & Cudeck, 1993), CFI 및 TLI는 .95 이상(Hu & Bentler, 1999)을 수용 가능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였다. 선행연구(예: Dworkin, 2018; Kilpatrick et al., 2013)와 본 연구 상관분석 결과에 따라 외상후스트레스 증상에 대한 성별 및 오프라인 성폭력 피해 경험의 영향을 통제하였다. 특히, 응답자 중 65명이 기술매개 성폭력과 오프라인 성폭력 피해를 모두 경험하였다고 보고하였기 때문에, 오프라인 성폭력 피해 경험을 통제함으로써 매개 경로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하고자 하였다. 성별과 기술매개 성폭력 및 오프라인 성폭력 피해 경험 간의 공분산도 설정하였다.

결 과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최근 12개월 이내에 기술매개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참여자는 158명(50.2%)이었으며, 모든 피해자들이 2회 이상의 피해 경험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 중 35.6%가 10회 이하로 경험하였고, 7.3%는 11회에서 20회, 4.1%는 21회에서 30회, 2.5%는 31회에서 40회, 0.6%는 40회 이상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다. 하위 유형별로는 디지털 성희롱/침해를 가장 많은 사람이 경험하였다고 보고하였으며, 젠더/섹슈얼리티 기반 괴롭힘도 다수 보고되었다. 참여자들이 보고한 하위 유형별 피해 빈도는 표 1에 제시하였다. 정서조절곤란 척도

의 평균 점수는 42.26점으로, 참여자들의 평균적인 정서조절곤란 수준은 중간 수준이었던 반면, 수치심 척도의 평균은 9.16점으로, 평균적으로 수치심을 거의 경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PCL-5 점수가 절단점인 25.5점(이동훈 등, 2022)을 넘긴 응답자는 73명(23%)이었다. 각 변수 간 상관은 표 2에 제시하였다. 성별과 오프라인 성폭력 피해 경험의 상관은 유의하였으나, 성별과 기술매개 성폭력 피해 경험의 상관은 유의하지 않았다.

경로분석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chi^2(4, 315)=18.82$, $p<.01$ 로 유의하였으며, RMSEA=.11 (90% CI [0.06, 0.16]), CFI=.97, TLI=.89로 확인되었다. 모형의 경로분석 결과는 그림 2와 표 3에 제시하였다. 기술매개 성폭력 피해 경험은 외상후스트레스 증상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beta=0.22$, 95% CI [0.12, 0.32], $p<.001$). 또한, 기술매개 성폭력은 정서조절곤란과 유의한 정

표 1. 기술매개 성폭력 하위 유형별 피해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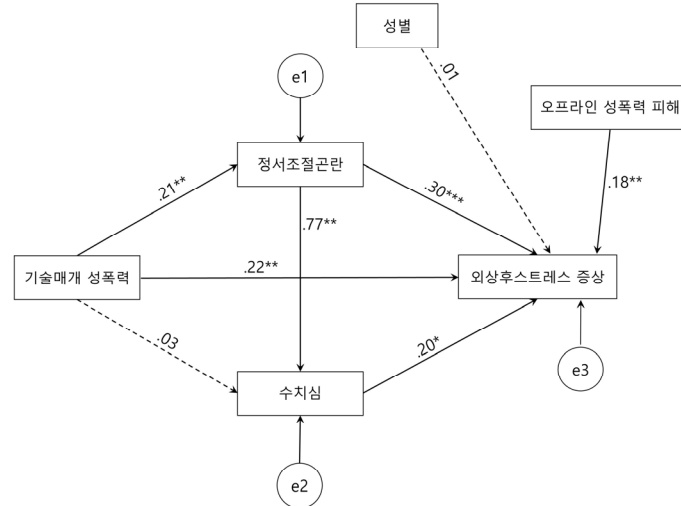
하위 유형	한 번 있었음	두 번 이상 있었음
디지털 성희롱/침해	133	156
이미지 기반 성적 학대	30	7
성적 공격/강요	30	12
그룹팅 성폭력	35	14
젠더/섹슈얼리티 기반 괴롭힘	53	76

표 2.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N=315$)

변인	1	2	3	4	5	6
1. 성별	-					
2. 기술매개 성폭력	-.01	-				
3. 정서조절곤란	.14*	.25***	-			
4. 수치심	.08	.27***	.78***	-		
5. 외상후스트레스 증상	.12*	.34**	.54***	.51***	-	
6. 성폭력 피해 경험	.13*	.50*	.24*	.25*	.36*	-
평균	-	2.54	42.26	9.16	13.63	1.63
표준편차	-	4.59	15.01	7.74	17.64	5.46

* $p<.05$, ** $p<.01$, *** $p<.001$

그림 2. 매개 성폭력과 외상후스트레스 증상의 관계에서 정서조절곤란과 수치심의 매개효과



주. 변인간 경로상 숫자는 표준화계수이며, 실선은 유의한 경로를 나타냄.

* $p < .05$, ** $p < .01$, *** $p < .001$.

표 3. 기술매개성폭력과 외상후스트레스 증상의 관계에서 각 경로의 경로계수

경로			β	95% CI	
				하한	상한
기술매개성폭력	→	정서조절곤란	0.21**	0.04	0.25
기술매개성폭력	→	수치심	0.03	-0.05	0.10
기술매개성폭력	→	외상후스트레스 증상	0.22***	0.12	0.32
정서조절곤란	→	수치심	0.77**	0.71	0.82
정서조절곤란	→	외상후스트레스 증상	0.30***	0.15	0.44
수치심	→	외상후스트레스 증상	0.20*	0.04	0.35

* $p < .05$, ** $p < .01$, *** $p < .001$.

적 관련성을 보였으며($\beta=0.21$, 95% CI [0.04, 0.25], $p < .01$), 정서조절곤란은 외상후스트레스 증상과 유의한 관련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 ($\beta=0.30$, 95% CI [0.15, 0.44], $p < .001$) 정서조절 곤란의 매개효과가 유의하게 확인되었다($\beta=0.06$, 95% CI [1.14, 5.97], $p < .01$). 다음으로,

기술매개 성폭력은 수치심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으나($\beta=0.03$, 95% CI [-0.05, 0.10], $p = .49$), 수치심은 외상후스트레스 증상과 유의한 정적 관련성을 나타냈다($\beta=0.20$, 95% CI [0.04, 0.35], $p < .05$). 그러나 기술매개 성폭력과 외상후스트레스 증상의 관계에서 수

표 4. 기술매개성폭력과 외상후스트레스 증상의 관계에서 정서조절곤란과 수치심의 매개효과

경로	β	95% CI	
		하한	상한
기술매개성폭력 → 정서조절곤란 → 외상후스트레스 증상	0.06**	1.14	5.97
기술매개성폭력 → 수치심 → 외상후스트레스 증상	0.01	-0.34	1.35
기술매개성폭력 → 정서조절곤란 → 수치심 → 외상후스트레스 증상	0.03*	0.42	3.58

* $p < .05$, ** $p < .01$

치심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beta=0.01$, 95% CI [-0.34, 1.35], $p=.36$). 매개효과의 표준화계수와 부트스트랩을 통해 95% 신뢰구간을 산출한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서조절곤란이 수치심으로 이어지는 경로는 유의하였으며($\beta=0.77$, 95% CI [0.71, 0.82], $p<.01$), 기술매개 성폭력이 정서조절곤란을 거쳐 수치심에 영향을 미치고, 다시 외상후스트레스 증상으로 이어지는 순차적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eta=0.03$, 95% CI [0.42, 3.58], $p<.01$). 아울러, 기술매개 성폭력 피해 경험은 정서조절곤란과 수치심을 통한 간접효과를 통제하고도, 외상후스트레스 증상에 대해 직접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직접효과 역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통제변인의 효과를 살펴본 결과, 성별은 외상후스트레스 증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beta=0.01$, 95% CI [-0.07, 0.10], $p=.70$), 오프라인 성폭력 피해는 외상후스트레스 증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0.18$, 95% CI [0.07, 0.31], $p<.01$).

제안된 연구모형의 타당성을 추가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매개변인 간 관계에 대하여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하여 경쟁모형을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정서조절곤란과 수치심이 독립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고려한 병렬매개모형과, 두 변인의 인과적 순서가 반대로 작용할 가능성을 반영한 순차매개모형을 구성하였다(그림 3, 그림 4 참조). 모형 적합도를 비교한 결과, 병렬매개모형은 제안된 연구모형에 비해 전반적인 모형

그림 3. 정서조절곤란과 수치심이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병렬매개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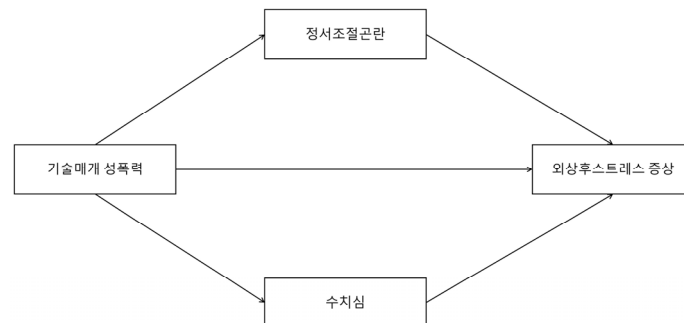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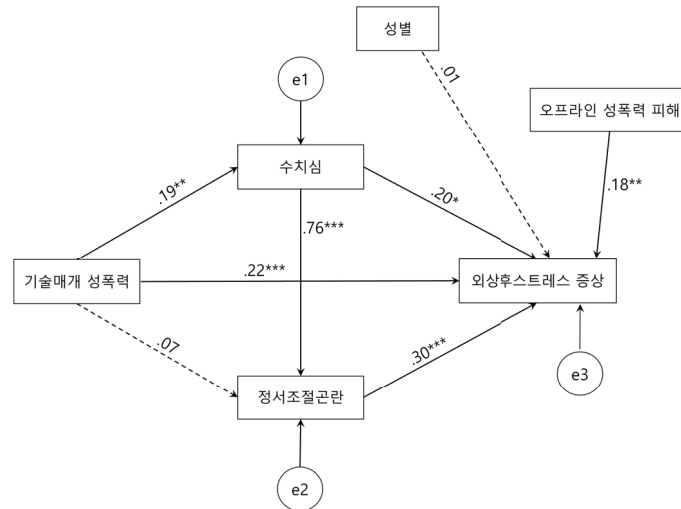


그림 4. 수치심과 정서조절곤란의 작용 방향이 반대로 작용하는 역방향 순차매개모형



주. 변인간 경로상 숫자는 표준화계수이며, 실선은 유의한 경로를 나타냄.

* $p < .05$, ** $p < .01$, *** $p < .001$

적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참조). 이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순차매개 경로의 구조가 자료에 보다 적합함을 시사한다.

한편, 역방향 순차매개모형의 모형 적합도는 연구모형과 동일하게 나타났다.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주요 경로 계수 비교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역방향 순차매개모형의 경우, 연구모형과 매개효과가 일부 다르게 나타났다. 먼저, 기술매개 성폭력이 수치심과 유의한 정적 관련성을 보였으며($\beta=0.19$, 95%

CI [0.07, 0.29], $p < .01$), 수치심의 매개효과 역시 유의하게 확인되었다($\beta=0.04$, 95% CI [0.41, 4.29], $p < .01$). 또한, 기술매개 성폭력이 정서조절곤란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으나($\beta=0.07$, 95% CI [-0.00, 0.14], $p=.06$),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는 유의하게 확인되었다($\beta=0.02$, 95% CI [0.02, 2.49], $p < .05$). 마지막으로, 기술매개 성폭력이 수치심을 거쳐 정서조절곤란에 영향을 미치고, 다시 외상후스트레스 증상으로 이어지는 순차적 매개효과 역시

표 5. 연구모형과 경쟁모형 간 모형 적합도 비교($N=315$)

모형	χ^2	df	RMSEA	90% CI		CFI	TLI
				하한	상한		
모형 1. 연구모형(순차매개)	18.82**	4	.11	0.06	0.16	.97	.89
모형 2. 병렬매개모형	296.72***	5	.43	0.39	0.47	.42	-.74

** $p < .01$, *** $p < .001$

표 6. 순차매개모형과 역방향 순차매개모형의 주요 경로계수 비교

경로			연구모형 (순차매개모형)	역방향 순차매개모형
기술매개성폭력	→	정서조절곤란	.21 [*]	.07
기술매개성폭력	→	수치심	.03	.19 [*]
정서조절곤란	→	수치심	.77 [*]	-
수치심	→	정서조절곤란	-	.76 ^{**}

* $p < .05$, ** $p < .01$

표 7. 역방향 순차매개모형에서의 수치심과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

경로	β	95% CI	
		하한	상한
기술매개성폭력 → 수치심 → 외상후스트레스 증상	0.04 ^{**}	0.41	4.29
기술매개성폭력 → 정서조절곤란 → 외상후스트레스 증상	0.02 [*]	0.02	2.49
기술매개성폭력 → 수치심 → 정서조절곤란 → 외상후스트레스 증상	0.04 ^{**}	0.76	4.02

* $p < .05$, ** $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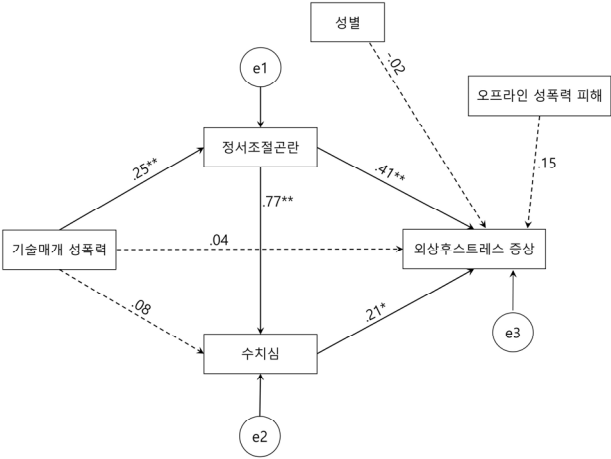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eta=0.04$, 95% CI [0.76, 4.02], $p < .01$) 역방향 순차매개모형의 매개효과와 표준화계수와 부트스트랩을 통해 95% 신뢰구간을 산출한 결과는 표 7에 제시하였다. 연구모형과 역방향 순차매개모형의 적합도 및 경로 유의성이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본 연구는 정서조절곤란이 수치심에 선행한다는 다수의 선행연구 및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연구모형을 최종 채택하였다.

추가 분석: 피해 경험 집단 모형 검증

추가적으로, 기술매개 성폭력 피해 경험인 한 번 이상 있는 참여자 158명만을 대상으로 동일한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피해자 집단을 대상으로 한 모형의 적합도

는 $\chi^2 (4, 158)=15.07$, $p < .01$ 로 유의하였으며, RMSEA=.13 (90% CI [0.07, 0.21]), CFI=.96, TLI=.85로 확인되었다. 분석 결과, 전체 표본에서 확인된 패턴이 전반적으로 재현되었다. 다만, 전체 표본에서 유의하였던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beta=0.04$, 95% CI [-0.08, 0.15], $p=.52$). 피해자 집단만 포함된 모형의 경로분석 결과는 그림 5 및 표 8에 제시하였다. 반면, 전체 표본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던 기술매개 성폭력과 외상후스트레스 증상의 관계에서 수치심의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eta=0.02$, 95% CI [0.07, 7.89], $p < .05$). 매개효과와 표준화계수와 부트스트랩을 통해 95% 신뢰구간을 산출한 결과는 표 9에 제시하였다.

그림 5. 기술매개 성폭력 피해 경험 집단에서 정서조절곤란과 수치심의 매개효과



주. 변인간 경로상 숫자는 표준화계수이며, 실선은 유의한 경로를 나타냄.
* $p < .05$, ** $p < .01$

표 8. 기술매개 성폭력 피해 경험 집단에서 각 경로의 경로계수

경로			β	95% CI	
				하한	상한
기술매개성폭력	→	정서조절곤란	0.25**	0.10	0.39
기술매개성폭력	→	수치심	0.08	-0.01	0.17
기술매개성폭력	→	외상후스트레스 증상	0.04	-0.08	0.16
정서조절곤란	→	수치심	0.77**	0.69	0.83
정서조절곤란	→	외상후스트레스 증상	0.41**	0.17	0.61
수치심	→	외상후스트레스 증상	0.21*	0.02	0.42

* $p < .05$, ** $p < .01$.

표 9. 기술매개 성폭력 피해 경험 집단에서 정서조절곤란과 수치심의 매개효과

경로	β	95% CI	
		하한	상한
기술매개성폭력 → 정서조절곤란 → 외상후스트레스 증상	0.10**	5.18	29.10
기술매개성폭력 → 수치심 → 외상후스트레스 증상	0.02*	0.07	7.89
기술매개성폭력 → 정서조절곤란 → 수치심 → 외상후스트레스 증상	0.04*	0.78	14.76

* $p < .05$, ** $p < .01$.

논 의

본 연구는 기술매개 성폭력 피해 경험의 외상후스트레스 증상으로 이어지는 심리적 기제를 정서조절곤란과 수치심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기술매개 성폭력 피해 경험은 외상후스트레스 증상과 유의한 정적 관계를 보였으며, 이는 오프라인 성폭력 피해가 PTSD와 관련된다는 기존 연구(Dworkin, 2018; Ullman et al., 2007)와 유사한 양상으로, 기술매개 성폭력 또한 피해자의 정신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오프라인 성폭력과 다르게, 신체적인 접촉이나 폭력을 수반하지 않더라도 기술매개 성폭력 역시 행위가 발생하는 시공간적 특성만 다를 뿐, 타인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경험하는 외상 사건이며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정신적인 고통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특성을 공유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전부터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어 왔던 아동 대상의 디지털 성폭력(Powell & Henry, 2018)을 넘어서, 성인 대상의 디지털 기술 기반 성폭력을 통칭하는 기술매개 성폭력 역시 중대한 범죄 행위로 인식하고, 피해자의 일상 회복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정서조절곤란의 유의한 매개효과가 확인되었고, 이는 정서조절곤란이 오프라인 성폭력 피해 맥락에서 핵심적인 매개요인으로 작용함을 보고한 연구(McLean & Foa, 2017)와 맥을 같이 한다. 즉, 기술매개 성폭력 피해는 오프라인 성폭력과 마찬가지로 정서조절의 어려움을 초래함으로써 외상후스트레스 증상에 영향을 미친다. 온라인 상에서의 만남이 오프라인 상에서의 성폭력으로 이어지는 일부

유형을 제외하고, 기술매개 성폭력의 하위 유형 중 대부분은 온라인 상에서 피해가 발생한다. 그러나, 상황이나 맥락에 적합한 정서적 상태를 유지 또는 표현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지칭하는 정서조절곤란(Gratz & Roemer, 2004)이 매개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은 기술매개 성폭력의 영향이 온라인 환경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오프라인 상으로도 이어짐으로써 피해자들의 일상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기술매개 성폭력으로 인한 정서조절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적절한 정서조절 전략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입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수치심은 유의한 단독 매개변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수치심이 오프라인 성폭력 피해 경험과 외상후스트레스 증상 간의 관계를 매개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들(오세연, 신현주, 2020; DeCou et al., 2018; Vidal & Petrak, 2006)과는 상반된 결과이다. 선행연구와 달리, 수치심이 단독 매개변인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 것은 수치심의 측정 방식과 표본 구성의 특징에서 기인했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매개 성폭력 피해를 겪지 않은 인원 역시 연구에 참가할 수 있도록 평소에 느끼는 수치심을 측정하였기 때문에, 피해 경험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수치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을 수 있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 평균적으로 낮은 점수(9.16점)가 나왔으며, 기술매개 성폭력과의 연관성도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그러나, 피해 경험이 있는 집단을 대상으로 한 추가 분석에서는 수치심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이는 수치심이 외상 사건에 대한 자기 비난을 통해(Duncan & Cacciatore, 2015; Ullman et al., 2014) 피해

경험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정서라는 점에서, 실제 피해를 경험한 집단에서는 보다 중요한 매개 기제로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후속 연구에서는 기술매개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인원을 더 높은 비율로 표집하여 사건과 관련된 수치심을 평가하고, 그 역할을 살펴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서조절곤란과 수치심이 순차적으로 작용하는 경로는 유의하여 정서조절곤란과 수치심의 순차매개 가설은 지지되었다. 이는 수치심이 단독으로는 기술매개 성폭력과 외상후스트레스 증상 간 관계를 설명하기 어려우나, 정서조절곤란이라는 선행 과정을 통해 외상후스트레스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요인으로 기능함을 의미한다. 즉, 기술매개 성폭력 피해는 정서조절의 어려움을 유발하고, 수치심이 원활하게 조절되는 대신, 역으로 심화되어 외상후스트레스 증상 수준의 증가로 이어짐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성폭력 등의 외상 사건 피해자들이 보고한 정서조절 곤란이 스스로에 대한 수치심에 영향을 미치며(Mirabile et al., 2023), 수치심 조절의 실패가 외상후스트레스 증상의 발생으로 이어진다는(Taylor, 2015) 선행연구와 일치한다. 또한, 이는 피해자의 회복을 지원하는 과정에 있어서 기능적인 정서조절 전략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중에서도 피해자가 스스로에 대해 느낄 수치심을 하향 조절할 수 있는 방식을 채택할 필요성이 존재함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대안적 설명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역방향 순차매개모형을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모든 경로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주모형에서 유의하지 않았던 수치심의 단독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순차적 매개효과는 매개변

수의 배열과 관계없이 일관되게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정서조절곤란과 수치심의 관계가 단일한 방향으로 설명되기 보다는, 상호적인 특성을 가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횡단자료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인과적 선후관계를 확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 점에서 본 연구 결과는 다양한 방향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해석될 필요가 있다.

한편, 추가적으로 기술매개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집단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 표본과는 다른 양상이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기술매개 성폭력에서 외상후스트레스 증상으로의 직접경로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으며, 정서조절곤란과 수치심의 간접효과만이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기술매개 성폭력 피해가 외상후스트레스 증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정서적 및 인지적 과정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한다. 피해자 집단에서 기술매개 성폭력 피해 경험이 외상후스트레스 증상으로 이어지는 직접 경로만이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 것은 선행연구(Mahoney et al., 2019; Mirabile et al., 2023)와는 일치하지 않는 양상이다. 피해 경험이 있는 인원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피해 경험의 유무에 따른 집단 간 차이가 통제되면서, 외상후스트레스 증상이 정서조절곤란 및 수치심과 같은 심리적 매개 과정을 통해 설명되는 양상이 보다 뚜렷하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기술매개 성폭력 경험이 단순한 스트레스 요인을 넘어서, 정서조절 및 수치심과 밀접하게 연관된 인지 및 심리적 과정 기반의 스트레스 요인임을 시사한다. 이를 통해, 피해자 대상의 심리적 개입 시 정서조절 능력 향상과 이를 통한 수치심 감소를 목표로 한

개입이 핵심적인 치료 표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본 연구는 기술매개 성폭력이 외상 후스트레스장애로 이어지는 기제를 확인함으로써 피해자의 치료 과정에서 다루어야 할 개입 목표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임상적 함의를 지닌다. 특히, 최신 국내 피해 사례를 반영하여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성폭력의 양상이 빠르게 변화한다는 특성을 고려해 기존의 기술매개 성폭력 피해 척도(Powell & Henry, 2019)를 확장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보다 다양한 유형의 기술매개 성폭력 피해 사례를 수집 및 종합하여 그에 대한 심리적 영향을 분석할 수 있었다. 경로 분석을 통해 정서조절의 어려움이 수치심을 심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외상후스트레스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리적 과정이 확인됨에 따라, 향후 심리적 개입에서는 기능적인 정서조절 전략의 사용을 통해 수치심과 같은 부정 정서의 효과적 조절을 지원하는 치료적 접근이 요구된다. 예를 들면, 지속노출치료(Prolonged Exposure Therapy)는 성적 외상 피해자가 외상 사건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오히려 외상후스트레스 증상을 심화시킨다는 점에 근거해, 관련 자극에 점진적으로 노출함으로써 공포를 완화하고 일상 기능을 회복하도록 돕는 치료이다(Jerud et al., 2015). 기술매개 성폭력 또한 디지털 환경의 특성상 피해자가 반복적으로 관련 자극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확인된 기술매개 성폭력 피해 경험이 외상후스트레스 증상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통하여 지속노출치료의 효과가 그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완화시키는 과정에서도 중요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인지처리치료(Cognitive Processing Therapy)는 외상중심

인지행동치료의 한 형태로, 성적 외상으로 인한 자기비난을 수정하는 데 중점을 두는데(Baggett et al., 2017), 본 연구에서 확인된 정서조절 곤란과 수치심의 역할이 외상후스트레스 증상으로 이어지는 경로는 수치심의 근거가 되는 자기비난적 사고(Bonanno et al., 2002)가 중요한 치료 표적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인지처리치료가 오프라인 성폭력 피해자의 지원과 더불어, 기술매개 성폭력 피해자의 회복을 지원하는 개입으로도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더하여, 본 연구는 최근 급증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기술매개 성폭력의 심리적 영향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사회적 함의 또한 갖는다. 기술매개 성폭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정신건강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심리적 회복과 관련된 체계적인 지원의 필요성은 사회적으로 충분히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8).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기술매개 성폭력 피해가 오프라인 성폭력(예: Mason & Lodrick, 2012; Mirabile et al., 2023)과 유사한 방식으로 외상 사건으로 작용하여 피해자의 심리적 고통을 유발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는 디지털 기술이 일상에서 쉽게 사용되는 현대 사회에서, 온라인을 매개로 한 성폭력 역시 피해자의 정신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술매개 성폭력 역시 심각한 범죄 피해로 간주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정당한 사회적 인식과 대응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현재 기술매개 성폭력을 포함한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관에서는 피해 상담과 정보 제공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촬영 및 유포된 게시물의 삭제 지원이나 유포 현황 모

니터링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 지원기관의 존재는 비교적 잘 인지되고 있음에도, 피해가 심각하지 않거나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해자 중 1% 미만의 인원만이 지원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으며, 지원을 받았더라도 일상회복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거나 약간의 도움만 제공받았다고 인식하는 실정이다. 또한, 정신적 피해로 인해 상담 등의 도움을 받은 인원도 5% 미만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22). 이는 기술매개 성폭력과 오프라인 성폭력 모두를 포함한 실태이긴 하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단계’의 필요성은 디지털 성범죄 대응책 중 가장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문화체육관광부, 2018)을 통해 기술매개 성폭력 피해자의 정신건강 지원 및 회복 역시 우선순위로 인식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확인하였듯, 기술매개 성폭력은 피해자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이다. 따라서 국가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이 지원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도록 권유하며, 지원기관을 통한 상담이 일상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홍보하여 필요성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필요성이 존재한다. 또한, 게시물 삭제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에 더하여, 사건이 종결된 이후에도 전문가와의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피해자가 경험하는 정서조절의 어려움이나 그로 인한 부정적 감정을 기능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참가자를 모집하였기 때문에, SNS를 이용하지 않는 집단이나 연령

대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제한점이 존재한다.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표집 경로를 통해 보다 대표성 있는 표본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통해 주요 변인을 측정하였기 때문에 응답자의 기억 왜곡이나 사회적 바람직성을 고려한 응답이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설문 참여에 동의한 인원 대비 최종 분석 표본의 탈락률이 높은 점은 선택편향을 야기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연구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제한할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평가 방식을 병행하고, 자료 수집 및 관리 절차를 정교화하여 자료의 타당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셋째, 자료 수집 과정에서 기술매개 성폭력 피해 유무와 횟수만을 측정하였고, 피해의 구체적인 심각도에 대한 정보는 수집하지 않았다. 그 결과, 기술매개 성폭력 피해를 보고한 모든 참여자가 2회 이상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복된 피해는 더 높은 수준의 외상후스트레스 증상과 관련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외상 사건에 일회성으로 노출되는 것에 비해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을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선행연구(Hyland et al., 2020)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일부 참여자가 단기간 내 반복적인 피해 경험을 보고한 것은 표집이 이루어진 SNS 환경의 특성상 상호작용과 반복적 접촉이 이루어지기 용이하다는 맥락과 연관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 가해 행위가 더욱 폭력적일수록 외상후스트레스 증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Peter-Hagene & Ullman, 2015)을 고려할 때, 향후 연구에서는 피해의 심각도를 세분화하여 그에 따른 심리적 고통의 차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기술매개 성폭력 피해 척도는 다양한 하위 유형별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 유형별 피해 경험자의 수가 불균형하게 분포되어 있어 이를 구분하여 분석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충분한 표본을 확보하여, 하위 유형별로 그 특성에 따라 피해자의 외상후스트레스 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교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 한편, DSM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체크리스트 절단점을 초과한 응답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 경험(예: 심리치료, 약물치료 등)을 고려하지 못한 점 역시 한계로 볼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피해자들의 치료 경험을 함께 고려하여 변인 간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 넷째, 성별과 오프라인 성폭력 피해 경험을 공변인으로 포함하였으나, 학력이나 고용상태 등 다른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공변인을 포함하여 기술매개 성폭력의 독립적인 영향을 보다 명확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횡단 연구이므로 변수 간 시간적 선후 관계를 확인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며, 정서조절곤란과 수치심이 피해의 결과일 뿐 아니라 선행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의 매개효과는 변인 간 관계를 설명하는 하나의 가능성으로 해석될 필요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선행 외상 경험의 영향 및 정서조절곤란과 수치심의 조절효과를 포함해 이들 요인 간 관계를 보다 폭넓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한편, 기술매개 성폭력은 이미지가 삭제되었다고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유포되거나 시공간적 제약 없이 빠르게 전파되는 특성(고현희, 2022; Jun, 2021)으로 인해 심리적 고통

이 장기화될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종단 연구를 통해 시간에 따른 기술매개 성폭력이 미치는 영향의 변화와 변수 간 관계를 보다 정확하게 검증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오프라인 성폭력이 외상후스트레스 증상으로 이어지는 기제를 다룬 기존 연구의 논의를 기술매개 성폭력 피해로 확장함으로써, 최근 증가하고 있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성폭력 피해가 피해자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정서조절곤란과 수치심의 매개효과에 초점을 맞추어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국내의 최신 피해 양상을 반영하여 기술매개 성폭력 피해 척도를 확장함으로써 보다 많은 피해 유형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기술매개 성폭력 피해가 외상후스트레스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 피해의 사회적 심각성을 조명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이를 통해 피해자의 심리적 회복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임상적 함의를 지닌다.

참고문헌

- 고현희. (2022). 디지털 성범죄의 현황과 법제 개선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수아, 장다혜. (2019). 온라인 피해 경험을 통해 본 성적 대상화와 온라인 성폭력 문제. *미디어, 젠더 & 문화*, 34(1), 89-130. <https://doi.org/10.38196/mgc.2019.03.34.1.89>
- 문화체육관광부. (2018). 디지털 성범죄 관련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보고서.

- <https://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38254>
- 여성가족부. (2022). 성폭력안전실태조사. https://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4&bbtSn=704388
- 오세연, 신현주. (2020).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 실태 및 사례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범죄정보연구*, 6(1), 97-120. <https://www.earticle.net/Article/A377863>
- 윤지영. (2023). 메타버스 시대, 범죄의 재구성 과 형사사법적 대응. *저스티스*, 194(3), 503-539. <https://doi.org/10.29305/tj.2023.2.194.503>
- 이동훈, 이덕희, 김성현, 정다송. (2022). PCL-5(DSM-5 기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체크리스트)한국판 종단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8(2), 187-217. <https://doi.org/10.20406/kjcs.2022.5.28.2.187>
- 허지혜, 박경우, 장혜인. (2025). 여성의 자기대상화와 이상섭식태도 및 행동의 관계: 정서조절곤란과 우울의 순차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30(1), 43-65. <https://doi.org/10.17315/kjhp.2025.30.1.003>
- Aakvaag, H. F., Thoresen, S., Wentzel-Larsen, T., Dyb, G., Røysamb, E., & Olf, M. (2016). Broken and guilty since it happened: A population study of trauma-related shame and guilt after violence and sexual abuse.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204, 16-23. <https://doi.org/10.1016/j.jad.2016.06.004>
- Amstadter, A. B., & Vernon, L. L. (2008). Emotional reactions during and after trauma: A comparison of trauma types. *Journal of Aggression Maltreatment & Trauma*, 14(4), 391-408. <https://doi.org/10.1080/10926770801926492>
- Baggett, L. R., Eisen, E., Gonzalez Rivas, S., Olson, L. A., Cameron, R. P., & Mona, L. R. (2017). Sex Positive assessment and treatment among female trauma survivors.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73(8), 965-974. <https://doi.org/10.1002/jclp.22510>
- Berfield, J. B., Goncharenko, S., Forkus, S. R., Contractor, A. A., & Weiss, N. H. (2021). The differential relation of trauma types with negative and positive emotion dysregulation. *Anxiety Stress & Coping*, 35(4), 425-439. <https://doi.org/10.1080/10615806.2021.1964072>
- Blevins, C. A., Weathers, F. W., Davis, M. T., Witte, T. K., & Domino, J. L. (2015). The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Checklist for DSM 5 (PCL 5): Development and Initial Psychometric Evaluation. *Journal of Traumatic Stress*, 28(6), 489-498. <https://doi.org/10.1002/jts.22059>
- Bockers, E., Roepke, S., Michael, L., Renneberg, B., & Knaevelsrud, C. (2015). The role of generalized explicit and implicit guilt and shame in interpersonal traumatization an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The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204(2), 95-99. <https://doi.org/10.1097/nmd.0000000000000428>

- Bonanno, G. A., Keltner, D., Noll, J. G., Putnam, F. W., Trickett, P. K., LeJeune, J., & Anderson, C. (2002). When the face reveals what words do not: Facial expressions of emotion, smiling, and the willingness to disclose childhood sexual abus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3*(1), 94-110.
<https://doi.org/10.1037/0022-3514.83.1.94>
- Browne,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21*(2), 230-258.
<https://doi.org/10.1177/0049124192021002005>
- Chesney, S. A., & Gordon, N. S. (2016). Profiles of emotion regulation: Understanding regulatory patterns and the implications for posttraumatic stress. *Cognition & Emotion, 31*(3), 598-606.
<https://doi.org/10.1080/02699931.2015.1126555>
- DeCou, C. R., Mahoney, C. T., Kaplan, S. P., & Lynch, S. M. (2018). Coping self-efficacy and trauma-related shame mediate the association between negative social reactions to sexual assault and PTSD symptoms. *Psychological Trauma Theory Research Practice and Policy, 11*(1), 51-54.
<https://doi.org/10.1037/tra0000379>
- Donato, S., Eslen-Ziya, H., & Mangone, E. (2022). From offline to online violence: new challenges for the contemporary society. *International Review of Sociology, 32*(3), 400-412.
<https://doi.org/10.1080/03906701.2022.2133405>
- Duncan, C., & Cacciatore, J. (2015). A Systematic Review of the Peer-Reviewed Literature on Self-Blame, Guilt, and Shame. *OMEGA - Journal of Death and Dying, 71*(4), 312-342.
<https://doi.org/10.1177/0030222815572604>
- Dwivedi, Y. K., Kshetri, N., Hughes, L., Rana, N. P., Baabdullah, A. M., Kar, A. K., Koohang, A., Ribeiro-Navarrete, S., Belei, N., Balakrishnan, J., Basu, S., Behl, A., Davies, G. H., Dutot, V., Dwivedi, R., Evans, L., Felix, R., Foster-Fletcher, R., Giannakis, M., . . . Yan, M. (2023). Exploring the Darkverse: A Multi-Perspective Analysis of the negative societal impacts of the Metaverse. *Information Systems Frontiers, 25*(5), 2071-2114.
<https://doi.org/10.1007/s10796-023-10400-x>
- Dworkin, E. R. (2018). Risk for Mental Disorders Associated with Sexual Assault: A Meta-Analysis. *Trauma Violence & Abuse, 21*(5), 1011-1028.
<https://doi.org/10.1177/1524838018813198>
- Ferreira, C., Moura-Ramos, M., Matos, M., & Galhardo, A. (2022). A new measure to assess external and internal shame: development, factor structure and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External and Internal Shame Scale. *Current Psychology, 41*(4), 1892-1901.
<https://doi.org/10.1007/s12144-020-00709-0>
- Fox, J., & Weisberg, S. (2019). *An R*

- Companion to Applied Regression*, Third edition. Sage, Thousand Oaks CA.
<https://www.john-fox.ca/Companion/>
- Garnefski, N., Van Den Kommer, T., Kraaij, V., Teerds, J., Legerstee, J., & Onstein, E. (2002). The relationship between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and emotional problems: comparison between a clinical and a non clinical sample.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16(5), 403-420.
<https://doi.org/10.1002/per.458>
- Gratz, K. L., & Roemer, L. (2004). Multidimensional assessment of emotion regulation and dysregulation: development, factor structure, and initial validation of the 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scale. *Journal of Psychopathology and Behavioral Assessment*, 28(1), 41-54.
<https://doi.org/10.1023/b:joba.0000007455.08539.94>
- Gross, J. J. (1998). The Emerging Field of Emotion Regulation: An Integrative Review.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2(3), 271-299.
<https://doi.org/10.1037/1089-2680.2.3.271>
- Gross, J. J. (2002). Emotion regulation: Affective, cognitive, and social consequences. *Psychophysiology*, 39(3), 281-291.
<https://doi.org/10.1017/s0048577201393198>
- Gross, J. J., & John, O. P. (2003). Individual differences in two emotion regulation processes: Implications for affect, relationships, and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5(2), 348-362.
<https://doi.org/10.1037/0022-3514.85.2.348>
- Henry, N., & Powell, A. (2015). Embodied harms: Gender, Shame, and Technology-Facilitated Sexual Violence. *Violence Against Women*, 21(6), 758-779.
<https://doi.org/10.1177/1077801215576581>
- Hu, L.,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6(1), 1-55.
<https://doi.org/10.1080/10705519909540118>
- Hyland, P., Vallières, F., Cloitre, M., Ben-Ezra, M., Karatzias, T., Olff, M., Murphy, J., & Shevlin, M. (2020). Trauma, PTSD, and complex PTSD in the Republic of Ireland: prevalence, service use, comorbidity, and risk factors.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55(4), 649-658.
<https://doi.org/10.1007/s00127-020-01912-x>
- Jerud, A. B., Pruitt, L. D., Zoellner, L. A., & Feeny, N. C. (2015). The effects of prolonged exposure and sertraline on emotion regulation in individuals with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77, 62-67.
<https://doi.org/10.1016/j.brat.2015.12.002>
- Johnson, S. M., Murphy, M. J., & Gidycz, C. A. (2017).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Sexual Experiences Survey - Short Forms Victimization and Perpetration. *Violence*

- and Victims, 32(1), 78-92.
<https://doi.org/10.1891/0886-6708.vv-d-15-00110>
- Jun, W. (2021). A study on characteristics analysis and countermeasures of digital sex crimes in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9(1), 12.
<https://doi.org/10.3390/ijerph19010012>
- Kaufman, E. A., Xia, M., Fosco, G., Yaptangco, M., Skidmore, C. R., & Crowell, S. E. (2016). The 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Scale Short Form (DERS-SF): validation and replication in adolescent and adult samples. *Journal of Psychopathology and Behavioral Assessment*, 38(3), 443-455.
<https://doi.org/10.1007/s10862-015-9529-3>
- Kennedy, A. C., & Prock, K. A. (2018). "I still feel like I am not normal": A review of the role of stigma and stigmatization among female survivors of child sexual abuse, sexual assault, and intimate partner violence. *Trauma Violence & Abuse*, 19(5), 512-527.
<https://doi.org/10.1177/1524838016673601>
- Killean, R., McAlinden, A., & Dowds, E. (2022). Sexual violence in the digital Age: Replicating and augmenting harm, victimhood and blame. *Social & Legal Studies*, 31(6), 871-892.
<https://doi.org/10.1177/09646639221086592>
- Kilpatrick, D. G., Resnick, H. S., Milanak, M. E., Miller, M. W., Keyes, K. M., & Friedman, M. J. (2013). National Estimates of Exposure to Traumatic Events and PTSD Prevalence Using DSM-IV and DSM-5 Criteria. *Journal of Traumatic Stress*, 28(5), 537-547.
<https://doi.org/10.1002/jts.21848>
- Koss, M. P., Abbey, A., Campbell, R., Cook, S., Norris, J., Testa, M., Ullman, S., West, C., & White, J. (2007). Revising the SES: a collaborative process to improve assessment of sexual aggression and victimization.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31(4), 357-370.
<https://doi.org/10.1111/j.1471-6402.2007.00385.x>
- La Bash, H., & Papa, A. (2013). Shame and PTSD symptoms. *Psychological Trauma Theory Research Practice and Policy*, 6(2), 159-166.
<https://doi.org/10.1037/a0032637>
- MacKinnon, D. P., Lockwood, C. M., & Williams, J. (2004). Confidence limits for the indirect effect: distribution of the product and resampling methods.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39(1), 99-128.
https://doi.org/10.1207/s15327906mbr3901_4
- Maercker, A., & Horn, A. B. (2013). A Socio interpersonal perspective on PTSD: the case for environments and interpersonal processes. *Clinical Psychology & Psychotherapy*, 20(6), 465-481.
<https://doi.org/10.1002/cpp.1805>
- Mahoney, C. T., Lynch, S. M., & Benight, C. C. (2019). The Indirect Effect of Coping Self-Efficacy on the relation between

- sexual violence and PTSD symptom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36 (21-22), 9996-10012.
<https://doi.org/10.1177/0886260519881525>
- Martin, C. G., Cromer, L. D., DePrince, A. P., & Freyd, J. J. (2011). The role of cumulative trauma, betrayal, and appraisals in understanding trauma symptomatology. *Psychological Trauma Theory Research Practice and Policy*, 5(2), 110-118.
<https://doi.org/10.1037/a0025686>
- Mason, F., & Lodrick, Z. (2012). Psychological consequences of sexual assault. *Best Practice & Research Clinical Obstetrics & Gynaecology*, 27(1), 27-37.
<https://doi.org/10.1016/j.bpobgyn.2012.08.015>
- McLean, C. P., & Foa, E. B. (2017). Emotions and emotion regulation in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Current Opinion in Psychology*, 14, 72-77.
<https://doi.org/10.1016/j.copsyc.2016.10.006>
- Mirabile, M., Gnatt, I., Sharp, J. L., & Mackelprang, J. L. (2023). Shame and emotion dysregulation as pathways to posttraumatic stress symptoms among women with a history of interpersonal trauma.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39(7-8), 1853-1876.
<https://doi.org/10.1177/08862605231211924>
- Paulus, D. J., Vanwoerden, S., Norton, P. J., & Sharp, C. (2016). Emotion dysregulation, psychological inflexibility, and shame as explanatory factors between neuroticism and depression.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190, 376-385.
<https://doi.org/10.1016/j.jad.2015.10.014>
- Peter-Hagene, L. C., & Ullman, S. E. (2015). Sexual assault-characteristics effects on PTSD and psychosocial mediators: A cluster-analysis approach to sexual assault types. *Psychological Trauma Theory Research Practice and Policy*, 7(2), 162-170.
<https://doi.org/10.1037/a0037304>
- Powell, A., & Henry, N. (2016). Policing technology-facilitated sexual violence against adult victims: police and service sector perspectives. *Policing & Society*, 28(3), 291-307.
<https://doi.org/10.1080/10439463.2016.1154964>
- Powell, A., & Henry, N. (2019). Technology-facilitated sexual violence victimization: Results from an online survey of Australian adult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34(17), 3637-3665.
<https://doi.org/10.1177/0886260516672055>
- Puhalla, A., Flynn, A., & Vaught, A. (2021). Shame as a Moderator between Emotion Dysregulation an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Severity among Combat Veterans Seeking Residential Treatment.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283, 236-242.
<https://doi.org/10.1016/j.jad.2021.01.079>
- R Core Team. (2023). *R (4.3.2): A Language and Environment for Statistical Computing*. R Foundation for Statistical

- Computing, Vienna, Austria.
<https://www.R-project.org/>
- Raudales, A. M., Short, N. A., & Schmidt, N. B. (2019). Emotion dysregulation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trauma type and PTSD symptoms in a diverse trauma-exposed clinical sampl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39*, 28-33.
<https://doi.org/10.1016/j.paid.2018.10.033>
- Ruork, A. K., McLean, C. L., & Fruzzetti, A. E. (2022). It happened matters more than what happened: associations between intimate partner violence abuse type, emotion regulation, and Post-Traumatic stress symptoms. *Violence Against Women, 28*(5), 1158-1170.
<https://doi.org/10.1177/10778012211013895>
- Schoenleber, M., & Berenbaum, H. (2011). Shame regulation in personality patholog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21*(2), 433-446.
<https://doi.org/10.1037/a0025281>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445.
<https://doi.org/10.1037/1082-989x.7.4.422>
- Tangney, J. P., Stuewig, J., & Mashek, D. J. (2006). Moral emotions and moral behavior.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8*(1), 345-372.
<https://doi.org/10.1146/annurev.psych.56.091103.070145>
- Taylor, T. F. (2015). The influence of shame on posttrauma disorders: have we failed to see the obvious? *European Journal of Psychotraumatology, 6*(1).
<https://doi.org/10.3402/ejpt.v6.28847>
- Ullman, S. E., Peter-Hagene, L. C., & Relyea, M. (2014). Coping, emotion regulation, and Self-Blame as mediators of sexual abuse and psychological symptoms in adult sexual assault. *Journal of Child Sexual Abuse, 23*(1), 74-93.
<https://doi.org/10.1080/10538712.2014.864747>
- Ullman, S. E., Townsend, S. M., Filipas, H. H., & Starzynski, L. L. (2007). Structural models of the relations of assault severity, social support, avoidance coping, Self-Blame, and PTSD among sexual assault survivor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31*(1), 23-37.
<https://doi.org/10.1111/j.1471-6402.2007.00328.x>
- Vidal, M. E., & Petrak, J. (2006). Shame and adult sexual assault: a study with a group of female survivors recruited from an East London population. *Sexual & Relationship Therapy, 21*(2), 159-171.
<https://doi.org/10.1080/14681990600784143>
- Woodward, M. J., Eddinger, J., Henschel, A. V., Dodson, T. S., Tran, H. N., & Beck, J. (2015). Social support, posttraumatic cognitions, and PTSD: The influence of family, friends, and a close other in an interpersonal and non-interpersonal trauma group.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35*, 60-67.

<https://doi.org/10.1016/j.janxdis.2015.09.002>
Yeo, I. K., & Johnson, R. A. (2000). A
new family of power transformations
to improve normality or symmetry.
Biometrika, 87(4), 954-959.
<https://doi.org/10.1093/biomet/87.4.954>

원고접수일: 2025년 9월 1일
논문심사일: 2026년 3월 4일
게재결정일: 2026년 5월 12일

The Effect of Technology-facilitated Sexual Violence on Post-Traumatic Stress Symptoms: Mediating Effects of Emotional Dysregulation and Shame

Haera Seon

Department of Psychology,
Sungkyunkwan University

Kyeongwoo Park

Institute of Applied Psychology,
Sungkyunkwan University

Hyein Chang

Department of Psychology,
Sungkyunkwan University

Daisuke Ito

Hyogo University of
Teacher Education

Yushun Okabe

School of Allied Health
Sciences, Kitasato University

Yuna Matsuoka

Hyogo University of
Teacher Education

Technology-facilitated sexual violence (TFSV) refers to sexual violence that occurs through online and digital communication technology. Although its incidence is increasing, the effects on victims' mental health and the underlying mechanisms have not been extensively studied.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TFSV exposure an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nd attempted to identify the roles of emotion dysregulation and shame in this process. The experiences of TFSV, post-traumatic stress symptoms, emotion dysregulation, and shame were measured through a self-report questionnaire completed by 315 Korean adult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revealed a positive TFSV and post-traumatic stress symptoms, a relationship significantly mediated by emotion dysregulation. While the mediating effect of shame was not significant, the sequential mediating effect of emotion dysregulation and sham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FSV and post-traumatic stress symptoms was significant. This finding indicates that TFSV leads to emotional dysregulation, which in turn intensifies shame, contributing to an increase in post-traumatic stress symptoms. This study has clinical implications, as it aims to draw social interest to the rising damage caused by TFSV and proposes treatment targets by examining its effects on victims' mental health and psychological mechanisms.

Keywords: Technology-Facilitated Sexual Violence, post-traumatic stress symptoms, shame, emotion dysregulation

부 록

기술매개 성폭력 피해 척도 개정판 (Technology-Facilitated Sexual Violence Victimization Scale -Revised; TFSV-V-R)

Q. How often have you personally experienced the following negative, sexually-based behaviours either online or via other electronic devices?

Q. 온라인이나 기타 전자기기 사용 중에 아래에 제시된 부정적인 성 관련 행동들을 경험하신 적이 있나요? 얼마나 자주 경험하셨나요?

in your lifetime (평생 동안)		in the last 12 months (지난 12개월 동안)		
Ever (경험한 적 있음)	Never (경험한 적 없음)	None (전혀 없었음)	Once (한 번 있었음)	More than once (두 번 이상 있었음)
I Digital Sexual Harrassment/Intrusion (디지털 성희롱/침해)				
1	Someone sexually harassed you 누군가 당신을 성적으로 희롱함			
2	You received unwanted sexually explicit images, comments, emails, or text messages 원치 않는 외설적인 성적 이미지, 댓글,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를 받음			
3	A current or former intimate partner has checked up on you multiple times a day either online or via mobile phone, to find out where you are, who you are with, or what you are doing 현재 또는 예전의 친밀한 파트너(연인, 배우자 포함)가 온라인이나 휴대폰을 통해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누구와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하루에도 수 차례 확인함			
4	You experienced repeated and/or unwanted sexual requests online or via email or text message 온라인이나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반복적이거나 원치 않는 성적 요청을 받음			
5	A current or former intimate partner gained access to your emails or other online accounts without your permission 현재 또는 예전의 친밀한 파트너(연인, 배우자 포함)가 허락 없이 당신의 이메일이나 기타 온라인 계정들에 접속함			
6	Someone publicly posted online an offensive sexual comment about you 누군가 온라인에서 공개적으로 당신에 관한 모욕적이고 성적인 댓글을 남			
7	Someone has made you a sexual target and posted your personal detail online. 누군가 당신을 성적 대상으로 삼아 당신의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게시함			

(계속 1)

II Image-Based Sexual Abuse (이미지 기반 성적 학대)	
8	Someone has taken a nude, semi-nude or other sexual image or video of you, without your permission 누군가 당신의 허락 없이 당신의 나체, 반나체, 기타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함
9	Someone has posted online or sent onto others a nude, semi-nude or other sexual image or video of you without your permission 누군가 당신의 허락 없이 당신의 나체, 반나체, 기타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온라인에 게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냄
10	Someone has posted online or sent onto others an everyday image or video of you, along with a sexual expression, without your permission. 누군가 당신의 허락 없이 당신의 일상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성적인 표현과 함께 온라인에 게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냄
11	Someone has threatened to post online or send onto others a nude, semi-nude or other sexual image or video of you without your permission 누군가 당신의 허락 없이 당신의 나체, 반나체, 기타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온라인에 게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함
12	Someone has created a sexual image or video resembling you, using the deepfake or similar synthetic technology, without your permission. 누군가 당신의 허락 없이 딥페이크와 같은 합성 기술을 사용하여 당신처럼 보이는 성적 영상이나 사진을 제작함
13	Someone has posted online or sent onto others a sexual image or video (created using deepfake or similar technology) resembling you, without your permission 누군가 당신의 허락 없이 딥페이크와 같은 합성 기술을 사용하여 제작된 당신처럼 보이는 성적 영상이나 사진을 온라인에 게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냄
14	Someone has threatened to post online or send onto others a sexual image or video (created using deepfake or similar technology) resembling you, without your permission 누군가 당신의 허락 없이 딥페이크와 같은 합성 기술을 사용하여 제작된 당신처럼 보이는 성적 영상이나 사진을 온라인에 게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함
III Sexual Aggression/Coercion (성적 공격/강요)	
15	Someone has taken an image or video of an unwanted sexual experience that happened to you 누군가 당신에게 일어난 원치 않는 성적 경험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촬영함
16	Someone has posted online or sent onto others an image or video of an unwanted sexual experience that happened to you 누군가 당신에게 일어난 원치 않는 성적 경험의 사진이나 영상을 온라인에 게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냄

(계속 2)

III Sexual Aggression/Coercion (성적 공격/강요)

17	Someone has threatened to post online or send onto others an image or video of an unwanted sexual experience that happened to you 누군가 당신에게 일어난 원치 않는 성적 경험의 사진이나 영상을 온라인에 게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함
18	You had an unwanted sexual experience online with someone you first met online 온라인에서 처음 만난 사람과 온라인으로 원치 않는 성적 경험을 함
19	You had an unwanted sexual experience in person with someone you first met online 온라인에서 처음 만난 사람과 직접 만나서 원치 않는 성적 경험을 함
20	You had an unwanted sexual experience online with someone you met on a dating site or app 데이팅 사이트나 앱에서 만난 사람과 온라인으로 원치 않는 성적 경험을 함
21	You had an unwanted sexual experience in person with someone you met on a dating site or app 데이팅 사이트나 앱에서 만난 사람과 직접 만나서 원치 않는 성적 경험을 함

IV Sexual Grooming (그루밍 성폭력)

22	Someone has built trust with you and then cunningly led you to send or receive sexually explicit messages 누군가 당신과 신뢰를 쌓고 교묘하게 이끌어 외설적인 성적 메시지를 주고받도록 함
23	Someone has built trust with you and then cunningly led you to take a nude, semi-nude or other sexual image or video of you 누군가 당신과 신뢰를 쌓고 교묘하게 이끌어 나체, 반나체, 기타 성적인 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하도록 함
24	Someone has built trust with you and then cunningly led you to post online or send onto him, her, or others a nude, semi-nude or other sexual image or video of you 누군가 당신과 신뢰를 쌓고 교묘하게 이끌어 나체, 반나체, 기타 성적인 영상이나 사진을 온라인에 게시하거나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보내도록 함
25	Someone has built trust with you online and then cunningly led you to have a sexual experience in person 누군가 온라인에서 당신과 신뢰를 쌓고 교묘하게 이끌어 오프라인에서 성적 경험을 하도록 함

(계속 3)

V Gender/Sexuality-based Harrassment (젠더/섹슈얼리티 기반 괴롭힘)

26	Someone posted offensive or degrading messages, comments, or other content targeting your GENDER (e.g., sexist or rape jokes) 누군가 당신의 젠더(사회적 성별)를 표적으로 한 모욕적이거나 비하적인 메시지, 댓글 또는 다른 콘텐츠를 게시함 (예, 성차별 또는 강간 농담)
27	Someone posted offensive and/or degrading messages, comments or other content targeting your SEXUALITY or SEXUAL IDENTITY (e.g., jokes or comments about whether you are 'gay', 'lesbian', 'bisexual' or 'trans') 누군가 당신의 성적 취향이나 성 정체성을 표적으로 한 모욕적이거나 비하적인 메시지, 댓글 또는 다른 콘텐츠를 게시함 (예, 당신이 '동성애자', '양성애자', 또는 '트랜스젠더' 인지에 관한 농담이나 댓글)
28	In an online gaming space or virtual world, someone sent or commented offensive or degrading messages targeting your gender (e.g., sexist or rape jokes) 온라인 게임이나 가상현실에서 누군가 당신의 젠더를 표적으로 한 모욕적, 비하적인 메시지를 보내거나 댓글을 달 (예, 성차별 또는 강간 농담)
29	Someone sent you, or posted online, comments emails or text messages threatening to sexually assault you 누군가 당신을 성폭행하겠다고 협박하는 내용의 댓글을 달거나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를 보냄
30	Someone has sexually harassed and made unwanted sexual requests targeting your avatar or game character in an online site, virtual world, or gaming environment 누군가 온라인 사이트, 가상현실 또는 게임환경에서 당신의 아바타나 게임 캐릭터를 성적으로 희롱하거나 원치 않는 성적 요구를 함
31	Someone has described or visually represented an unwanted sexual act targeting your avatar or game character in an online site, virtual world, or gaming environment 누군가 온라인 사이트, 가상현실 또는 게임환경에서 당신의 아바타나 게임 캐릭터에 대한 원치 않는 성적 행위를 시각적으로 표현함
32	Someone described or visually represented an unwanted sexual act against you using an online site, email, or text message 누군가 온라인 사이트,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당신에 대한 원치 않는 성적 행위를 묘사하거나 시각적으로 표현함